

2/28 월요일

골 1:15-19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sup>1</sup>형상이시며, <sup>2</sup>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sup>1</sup>보좌들이나 <sup>2</sup>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sup>3</sup>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sup>4</sup>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sup>5</sup>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sup>1</sup>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sup>2</sup>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sup>1</sup>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 왜냐하면 <sup>1</sup>모든 <sup>2</sup>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엡 1:21-23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 위에,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히 1:3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마 8:9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라고 하면 합니다.”

요 1:3

3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각주에서 발췌

1:15<sup>1</sup>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신(히 1:3)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신다. 여기에서 형상은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속성과 미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참조 빌 2 장 각주 6). 이러한 해석은 골로새서 3 장 10 절과 고린도후서 3 장 18 절로 확증된다.

1:15<sup>2</sup>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나 창조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신(히 2:14 상) 그분은 창조물의 일부이시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절부터 18 절까지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16<sup>1</sup> ‘보좌들’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권위 있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1:16<sup>2</sup> 에베소서 1 장 각주 21 참조.

1:16<sup>3</sup>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를 의미한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능력 안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능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16<sup>4</sup> ‘그분을 통하여’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순서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1:16<sup>5</sup> 혹은, 그분을 위하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의 귀결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물은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안에서’와 ‘통하여’와

‘이르도록’은 창조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다.

1:17<sup>1</sup>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과거부터 존재하신 것을 가리킨다.

1:17<sup>2</sup> 혹은,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만물이 붙들어 주는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바퀴의 살들이 중심에 있는 바퀴통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과 같다.

1:18<sup>1</sup> 1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곧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계시한다. 그리고 1 장 18 절은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첫째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교회 안에서 으뜸이시다(고후 5:17, 갈 6:15).

1:19<sup>1</sup> ‘모든 충만’은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충만을 가리킨다.

1:19<sup>2</sup> ‘충만’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그 충만’이며, 어떤 수식어도 없다. 이것은 ‘이 충만’이 유일한 충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충만은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창조물 가운데와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모든 창조물과 온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러한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절의 충만은 1 장 15 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것은 바로 산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충만은 하나님의 표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만물을 하나님의 표현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는 이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어느 것도 그분을 떠나 따로 생각될 수 없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본질적인 능력 안에서, 적극적인 도구이신 그분을 통하여, 궁극적 목적이신 그분에게 지어졌다. 더욱이 만물이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창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안에서 나타낼 수 있다.

1 장 19 절에서 바울은, 「모든 총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총만이란, 15 절의 형상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총만한 표현이다. 총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표현, 그분의 형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함을 의미한다.

15 절에서 19 절까지는 골로새서의 한 단락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옛 창조에서나 새 창조에서나 먼저 나신 자로 계시된다. 하나님의 이 두 창조에 있어서 으뜸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지은 바 되었고, 또한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것은 옛 창조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새 창조에서 더욱 그러하다. 새 창조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다. 창조에 대한 그분의 주관적인 관계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총만이요, 형상이시다. 19 절에서의 총만은, 사물이 아닌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요 형상인 사람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10 장)

**3/1 화요일**

**골 1:19-23**

19 왜냐하면 모든 총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sup>1</sup>화평을 이루어, <sup>2</sup>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sup>3</sup>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sup>4</sup>그분을 통해 <sup>5</sup>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1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sup>1</sup>생각 안에서 그분과 <sup>2</sup>원수들이었습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3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sup>1</sup>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sup>2</sup>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골 2:9**

9 신격의 모든 총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고후 5:18-20**

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19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였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기신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골 1:20-22**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1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과 원수들이었습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1:20<sup>1</sup>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만물을 위하여 그분 자신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1:20<sup>2</sup>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물'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가리킨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으며(골 1:16-17),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20<sup>3</sup> 땅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천사장 사탄과 그를 따랐던 천사들의 반역 때문에, 하늘들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탄의 반역은 하늘들을 오염시켰다.

1:20<sup>4</sup> '그분을 통해'는 '화목을 성취하신 능동적인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를 의미한다.

1:20<sup>5</sup> 여기에서 '그분 자신'은 1 장 19 절의 총만을 가리킨다.

1:21<sup>1</sup> 우리는 주로 우리의 부패한 생각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1:21\*** 우리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화목이 필요하다.

**1:22\*** '그분'과 '그분 자신'은 모두 1 장 19 절의 총만을 가리킨다. 이 총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골 1:19),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한다(골 1:20). 또한 우리는 이 총만 앞에 세워질 것이다. 이 총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1:23\*** 이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킨다.

**1:23\*** 이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다(골 1:27).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하나님의 표현인 총만은 하나의 인격이다. 1 장 19 절 이후의 구절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칭 대명사들이 인격인 총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총만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가리킨다. 그분은 모든 총만이 아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므로, 아들은 이 총만 안에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환경에서나 교회에서나 으뜸이 되셔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그분은 또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의 실체이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가 하늘들이요, 땅이요, 해요, 생명이요, 빛이요, 별이요, 나무요, 꽃이요, 물이요, 공기요, 양식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능력, 거룩함, 의(義), 친밀함, 사랑과 같은 모든 거룩한 속성이시다. 그분은 겸손과 인내 같은 사람의 덕성이 되기도 하신다. 또한 그분은 교회이자 교회의 모든 지체들, 즉 하나님의 건물이자 건물 안의 모든 돌들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요 또한 나임을 뜻한다.

만유를 포함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가 되신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5 장)

### 3/2 수요일

####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sup>1</sup> 채웁니다.

**25**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빌 2:17-18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18**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 고후 1:5-6

**5**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 줍니다.

#### 엡 2:19-22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22**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 엡 3:2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 각주에서 발췌

**1:24\***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다면 그분의 몸의 산출과 건축을 위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었다. 그는 개심한 후 즉시 몸을 위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것도 부족할 수 없다는 관념과는 반대된다. 이 관념에 따르면,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완전하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중 한 가지가 부족함을 말해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그분의 고난이다. 그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큰 괴로움을 당하셨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완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한 자들이 이 부족함을 채울 필요가 있다. 바울은 구속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고통을 겪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는이들이 따라야 할 본이었다(딤후 1:16). 우리는 바울을 너무 높은,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본으로 여겨야 한다. 주님의 긍휼로 바울이 우리를 위한 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어떠하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긍휼이 바울을 하나의 본으로 만드셨다면, 그분의 긍휼은 바울 안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산출과 건축을 위해 고통을 겪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괴로움을 당하는 데 앞장서셨다. 그러나 사도들과 믿는이들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아야 한다. 요한복음 12 장 24 절에서 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낱고 산출하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하여 땅 속에 떨어져 한 알의 밀로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2 장 26 절에 의하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

...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을 알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고난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을 가질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그 청지기 직분이 고통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봉사과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완수하는 데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는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접대를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에 손님이 되는 것도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손님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주인들은 늘 변함없이 나를 아주 잘 돌봐주었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내가 나의 집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았다. 그 접대가 아무리 적합할지라도 나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또는 손님으로서 접대에 동참함으로써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었다고 간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왕족의 구성원들 속에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건 작건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든지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 메시지에서 지적하겠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구속의 성취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11 장)

**3/3 목요일**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25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sup>1</sup>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sup>2</sup>교회의 <sup>3</sup>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6 <sup>1</sup>이 비밀은 <sup>2</sup>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골 2:2**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고전 9:17**

17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에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엡 3:2-4**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엡 4:7, 29**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벧전 2:4-5**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벧전 4:10**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각주에서 발췌**

1:25<sup>1</sup> 에베소서 3 장 각주 2<sup>3</sup> 참조.

1:25\* 이것은 바울이 어떤 가르치는 일이나 전도의 일 혹은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1:25\* 헬라어로는 '집사'와 동일한 단어이며,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1:25\*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이며, 이 말씀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약에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전해 주었다.

1:26\*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이 절의 '이 비밀'은 1 장 25 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다. 이것은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게 준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엡 5:32), 곧 머리와 몸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비밀이 밝혀짐으로써,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1:26\* '영원부터'는 영원 이후를 의미하며, '모든 세대에'는 시간이 시작된 이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은 영원부터, 시간이 시작된 이후 각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를 포함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나타났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골로새서 1 장 25 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사역자가 된 것은」 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청지기 직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청지기 직분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에베소서 1 장 10 절과 3 장 9 절에서 경륜으로 표현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그 단어는 또한 에베소서 3 장 2 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대의 용법에 따르면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청지기 직분, 분배, 또는 행정을 의미한다. 바울 시대에 많은 부유한 가족들은 청지기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책임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음식과 그 외의 물품들을 분배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아버지에게 커다란 가족, 곧 거룩한 가정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방대한 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정에서는 많은 청지기들이 이러한 풍성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청지기 직분이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이란 곧 분배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지기 직분이란 왕가(王家)나 상류 가정에서의 부(富)의 분배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만유를 포함한 뛰어난 분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특별히 부유하다.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장 25 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리운 이러한 분배하는 봉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또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성경의 중심 요점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자신을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 즉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경륜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속에 분배되었던 후, 우리는 그 풍성을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할 부담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풍성은 하나님 편에서는 경륜이고, 우리 편에서는 청지기 직분이며, 그

풍성이 우리에게 의해 다른 사람들 속으로 분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속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경륜과 청지기 직분과 분배가 있다.

...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심지어 안내나 집회소 청소와 같은 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다.

(골로새서 라이프스터디, 11 장)

**3/4 금요일**

**골 1:26**  
26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7 하나님은 <sup>1</sup>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sup>2</sup>이 비밀은 <sup>3</sup>여러분 안에 계신 <sup>4</sup>그리스도인데, 곧 <sup>5</sup>영광의 소망입니다.

**엡 1:18**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엡 3:16**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롬 8:10**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9:23**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고후 13:5**

5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빌 3:21**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1:27<sup>1</sup>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는 이방인 믿는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 존재의 풍성(엡 3:8)을 가리킨다.

1:27<sup>2</sup>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광이 총만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우시다.

1:27<sup>3</sup> 이 책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골 1:27), 그리스도 안에서 총분히 성장한 사람(골 1:28),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골 2:6), '그리스도를 따른 것'(골 2:8),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골 2:13),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골 2:20), '머리를 붙들지 (골 2:19), '머리로부터(골 2:19),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골 2:19) 등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

1:27<sup>4</sup>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심으로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될 것(빌 3:21)을 의미한다.

1:27<sup>5</sup>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이 총만한 비밀이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그분의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롬 8:30) 가장 총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망 곧 영광의 소망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이 영광의 소망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오늘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고 또한 생명 주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총만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이신 새사람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비밀이다.

이 서신에서 바울의 기록은 아주 복잡하다. 그는 다양한 절과 관계대명사를 가진 많은 긴 문장들을 사용한다. 실지로 24 절부터 29 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6 절의 연속인 2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그 앞 구절에서 언급한 성도들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 곧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 가운데 알려졌다. 27 절의 「이것」은 비밀을 말한다. 이방 가운데 영광이 총만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비밀하고도 영광스럽다. 바울은 깊고 심오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은 복잡했고, 그의 문장들은 길었다.

27 절에서 말한 비밀의 영광의 풍성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방 가운데 이 비밀의 풍성은 이방의 믿는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풍성이다(엡 3:8).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서신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이방 나라들을 돼지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이방 가운데, 즉 이방의 「돼지」 가운데 알게 하려 하셨다고 말한다. 이방인을 묘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용어들 - 죄인들, 배역자들, 하나님의 대적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 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려 하셨다.

구원받은 후 당신은 영광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가져보지 않았는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대적자이며 배역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약은 우리가 제사장들이며 왕들임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는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고,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이 어떠한 영광인가!

그리스도를 믿는이들인 우리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풍성의 항목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분깃인 이 영광의 풍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영광은 이방인 가운데 있는 비밀의 영광이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셀 수 없는 풍성을 포함한 영광으로 가득찬 그 비밀이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14 장)

**3/5 토요일**

**골 1:28**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sup>1</sup>그리스도 안에서 <sup>2</sup>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sup>1</sup>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sup>2</sup>분투하고 있습니다.

**골 2:1**

1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골 4:12**

12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엡 1:19**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엡 3:20**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엡 4:13**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 6:1**

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딤후 4:6**

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벧전 4:11**

11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각주에서 발췌**

1:28<sup>1</sup> 앞 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이 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그분은 더욱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며,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순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된다.

1:28<sup>2</sup> 혹은,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 '온전한'은 질에 있어서 완벽한 것을 가리키고, '완전한'은 양에 있어

서 완벽한 것을 가리킨다. 사도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온갖 지혜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신성한 생명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람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9<sup>1</sup> 에베소서 3 장 각주 7<sup>2</sup>와 20<sup>2</sup> 참조.

1:29<sup>2</sup> 혹은, (씨름할 때처럼) 싸우고, 골로새서 4 장 12 절에서도 동일하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28 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렸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르쳤거나 전파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렸다고 한다. 그는 그분을 알리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자로 세우기」 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스도를 알리든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든지, 바울의 사역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하여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더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신장에 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됨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될 것이다.

...

우리 눈이 열려져, 우리의 일과 사역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 장 29 절에서 바울은 그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행을 따라 분투한다고 말했다. 이 분투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장성한 자로 세우는 분투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각 사람을 경고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1 장 29 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행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행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므로 또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행이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행을 가져오게 한다. 이 행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행에 대해 적어도 약간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은 것은 단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지적인 대로 그리스도의 행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행이 된다.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수고는 이러한 행에 따른 것이었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행이 거의 없다고 느낄지 모른다. 이러한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서 말해야 한다. 「주여, 나는 여전히 천연적이고 너무 많이 자아와 옛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나는 빛을 받고 순수해지고 투명해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원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으로 채워지도록 나를 드러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행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행은 능력으로 운행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3 장 7 절과 20 절에서 이 능력을 언급한다. 에베소서 3 장 7 절에서 「그분의 능력의 행」을, 3 장 20 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능력」을 언급한다. 이 능력은 믿는이들 안에 있는(엡 1:19) 부활 생명의 능력(빌 3:10)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엡 1:20-22)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요, 초월의 능력이요, 정복의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행을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해 분투할 수 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주님의 몸의 건축을 위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봉사하는 본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그리스도의 행을 따라 분투하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초월과 정복의 능력을 따라 분투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스터디, 17 장)

**3/6 주일**

히 1:8

8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와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 3:1

1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 4:14

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히 5:10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히 7:24

24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지니십니다.

히 8:1

1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9:12, 14

12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37

37 이것은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찬송 (영한 동번)**

#372 (#495), #150 (#197), #763 (#949), #n/a (#394)

**추가로 읽을 말씀**

라이프 스터디 빌립보서 메시지 9-10, 12-16

2022. 2. 28 ~ 2022. 3. 4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4 장